

미중경쟁과 한미동맹 강화 시기의 대중정책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한중관계 역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기대와 관심도 높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당당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해 나감으로써 미래의 한중관계 역시 한층 더 건강하고 밀도 있게 전진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 더불어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의 한반도정세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한중관계에 대해 일말의 우려 섞인 시선 역시 존재한다.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비롯된 반도체 관련 법 등 제반 경제적 사안들에서부터,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의 정치·군사·외교적 사안들 그리고 북한을 둘러싼 중국의 입장 및 이에 대한 우리의 접근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한 분야와 주제들에서 한중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 다양한 관심과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2022년 10월에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함께 향후 5년 동안 중국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중관계에 또 다른 이정표가 새겨졌다는 의미이다. 이에 본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서는 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들을 모시고, 앞으로의 5년 동안 강화되는 한미동맹 속에서 한중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미래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이다. 여기에서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분들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한다.

일시 및 장소

2022년 10월 17일(월)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사회

이석 북한경제연구실장(KDI)

대담자

이동률(동덕여자대학교), 주재우(경희대학교), 한석희(연세대학교)

이석: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DI 북한경제연구실에서는 미중경쟁과 한미동맹 강화 시기의 대중국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이해해 보고자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전에 비해 소원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물론 우리 국민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에도 당당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중국을 둘러싸고 자칫 한국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과 반도체 과학법 같은 경제적 사안들에서부터, 대만을 둘러싼 정치·군사·외교적 사안들 그리고 북한을 둘러싼 중국의 입장 및 이에 대한 우리의 활용 사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심과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우려는 단순히 우려에 그칠 뿐 현실에서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우려를 계기로 향후 한국사회가 중국과 미국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 특히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중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특히 현재 세계 경제가 점차 위기 국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경제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에서도 중국을 결코 간과하면 안된다는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이를 반영하여 이번 북한경제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중국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미중경쟁과 한미동맹 강화의 시기에 있어 중국에 대한 (효과적)대응’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다 이번 토론회가 현재 우리의 대중정책을 한 번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선 주재우 교수님께 중국의 경제 상황을 시작으로 중국의 상황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재우: 중국경제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헝다그룹 관련 이슈이다. 헝다그룹은 재작년 즈음에 위기설이 돌았다. 여러 지역으로 분사 이동도 했을 만큼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 작년 상반기부터 헝다그룹에 대한 소식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중국이 헝다그룹 파산 위기에 대한 우려를 다른 이슈로

돌리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환율이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금리 인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환율과 외환보유고 등 중국경제에 여러 영향을 주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Debt crisis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으로서는 대외적으로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수출에 호조를 보일 수 있겠으나 외자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다. 헝다그룹과 환율 이슈를 제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말씀드린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대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코로

나19로 인한 봉쇄정책의 여파인 것인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중국이 실질적으로 환율을 올린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공개된 공작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주의에 반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하는 경제정책과 창의성과 창조력이란 단어를 비롯해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 등 사회주의에 반하는 정책들이 그것이다. 현재 중국은 교육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 강국, 우주항공 강국, 디지털 강국 등 과학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비전으로 보이며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이 담긴 자료 역시 아직까진 공개된 바 없다.

중국의 정치·외교 분야를 살펴보면 중국은 불확실성 시대를 맞아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국은 당대회 보고서에서 대북관계, 주변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발전적 국가와의 관계 등 세 카테고리 분류하여 외교부문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북관계에 대한 발언 없이, '주변국들과 친하게 지내며 혜택을 나누고 서로 포용한다'라는 뜻의 친성혜용이란 단어를 내놓았다. 과거와 같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국가를 분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있어 현재 시진핑 주석이 당면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접근해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석: 주재우 교수님께서 헝다그룹과 환율 이슈를 살펴볼 때,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공개한 공작보고서에 따르면

기존과는 달리 사회주의 정책에 반하는 내용과 더불어 조급한 전략적 모호성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미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석희 교수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한석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Peak China'다. 이는 작년부터 미국에 나온 얘기인데 중국의 부상이 정점에 달했다는 뜻으로, 물론 아직 하향은 아니지만 한계선에 다다랐다고 설명할 수 있다. 최근 변화된 중국의 경제사정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에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국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제20차 당대회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공개된 공작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어떤 이들은 중국의 태도가 온건하게 바뀔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 중국은 당대회 이후에도 계속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국내 사회에 대한 통제 역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의 배경으로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미중갈등, 대만문제 등은 연결 지어 설명드리겠다. 우선 가장 먼저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생략하겠다. 다음으로 미중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미중갈등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보다는 개인적으로 미중갈등이 발발한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 이 부분이 중국의 강경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계속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강 대 강 대결로 대응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이 누적되어 결국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갈등이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 이후 중국과의 경제문제가 단순 경제이슈가 아닌 안보문제로 변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마지막으로 대만문제이다. 중국이 대만문제에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는 시진핑 주석의 레거시가(정치적 유산) 없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주석과 비슷한 수준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 마오쩌둥 주석에게는 그 역할과 의미를 부여할 만한 레거시가 있었던 것과 달리, 시진핑 주석에게는 본인의 권위를 내세울 만한 성과와 업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 주석과 견줄 만한 위상을 확보하려면 결국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현재 중국이 대만문제에 촉각을 더욱 곤두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석: 말씀 감사하다. 한석희 교수님께서도 현재 중국의 부상이 피크에 다다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중국의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셨다. 그 배경으로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미중갈등 등을 들어 주셨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그렇다면 이동률 교수님은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동률: 두 분 교수님께서 중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이슈에 집중하여 말씀드리겠다. 중국이 많은 국내외의 어려움 속에서 무리하게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시진핑 주석 개인의 권력욕에서 이유를 찾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산당 집권 세력 내부의 암묵적 동의 내지는 최소한의 목인이 없다면 3연임을 강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공산당 체제의 위기에 대한 권력 집단 내부의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공산당 체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에 대한 내부적 목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공산당 체제 정당성의 중요한 기반은 여전히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중국은 대내외의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기치로 통합과 체제 지지를 유도하고,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한다. 중국의 이러한 시도가 대외적으로는 오히려 공세적 이미지로 표출되고 있지만 내부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비용의 공세적 외교를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미중관계의 50년 역사를 돌아보면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상황에 대응하는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행보를 해왔다. 결국 미국이 미중관계의 열쇠를 쥐고 있다. 미국이 양국 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어떠한 강도의 공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미중관계는 영향을 받아 왔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주도적으로 공세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신형대국관계, 신형국제관계 제의했다는 것을 중국의 공세적 태도 변화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소위 신형대국관계, 신형국제관계가 주목받은 이유는 미중관계의 역사에서 중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먼저 양국관계의 방향에 대한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기 보다는 중국 자신들이 상정하고 있는 핵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이 우려하는,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전통적인 주요 쟁점들이 있다. 소위 중국의 아킬레스건인데 경제 무역 등 발전이슈, 대만 등 영토 주권 그리고 중국 내정문제 등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취약하게 여기는 아킬레스건, 핵심이익과 직결된 현안들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였다. 예컨대 트럼프 정부는 홍콩과 신장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대만을 지원하였으며,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과 갈등을 회피하고자 한다. 그런데 미국이 공산당 체제, 대만문제 등 이른바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경우 중국도 회피하기 어렵다. 특히 대만문제의 경우는 중국 입장에서도 영토 주권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할 공간이 크지는 않다. 최근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미중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미중 양국은 갈등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대화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서로의 대응 방식과 정도를 확인해 보고 있다. 비록 전화 통화나 화상회의 방식이지만 정상회담 등 고위급 대화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새롭게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쟁점이 있다. 바로 '탈중국화'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탈중국화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에 오히려 무한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양국 모두 이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이 '탈중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중국은 경제성장을 억지하려는 시도로 인식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의 제20차 당대회 업무 보고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통상적으로 업무 보고는 외교보다는 국내 문제, 특히 사상, 당체제, 사회안전, 경제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업무 보고에는 중국의 발전 방향과 내용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중국은 미국의 탈중국화에 맞서 독자적인 발전방식,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예컨대 첨단기술 분야에서 자립과 자강을

실현해서 미국의 탈중국화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는 21세기 중업을 겨냥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역설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다양한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당대회 보고의 외교부문은 변화보다 연속성의 측면이 뚜렷하다.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등 기존의 외교 담론들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무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이석: 이동률 교수님께서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대해 공산당 내부에서의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다. 중국 대한 경제문제는 물론 여러 사회문제들이 나타난 배경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세 분의 얘기를 통해 중국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한석희: 중국이 국가전략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은 중국몽이다.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야망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 일류 국가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은 미국을 능가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야 할 적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 중국의 모든 대외정책의 포커스는 ‘미국을 어떻게 능가하느냐’이다.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는 이유 역시 본인의 지도가 있어야만 미국을 넘어서 중국을 세계 초일류 국가로 키울 수 있다는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시진핑의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과 위정자들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헤쳐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인지하고 있다.

최근 미중경쟁의 새로운 변수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타났다.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은 러시아가 자신들의 우군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쟁 초기에 러시아 편을 들었다. 그러나 전쟁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자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전쟁을 장기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을 많이 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합세해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이 러시아의 패색이 짙어지자 본인들의 입지를 우려하며 러시아와의 공조관계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석: 말씀 감사하다. 다음으로 이동률 교수님께서서는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요청드립니다.

이동률: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 심지어는 양극단의 상이한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한편으로 중국경제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패권국이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 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안정적인 공산당 체제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경제성장 등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제20차 당대회 보고에도 이러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회복이 공산당 체제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강화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보다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지연시키면서 적어도 2049년까지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희망과 달리,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저지시키고 추격을 좌절시키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핵심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아니라면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립과 충돌은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대만문제는 예외인 것 같다. 중국은 대만문제에 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독립의 현실화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해 선제적으로 무력을 통해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사실 중국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중국은 이번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의 외교 비전과 전략을 들여다 보면 국제 사회가 공감하거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새롭고 보편적인 비전과 질서 구상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시진핑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류운명공동체, 신형대국관계 역시 '차이나 퍼스트' 정책의 일환이지 새로운 국제질서 건축의 구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석희: 미국은 2017년에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통해 미국의 가장 강대한 적은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제외되고 중국을 단독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앞서 이동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겠지만 이미 강경해진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눈에 띄는 변화는 중국과의 경제문제를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닌 미국의 국가 안보와 연관 지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중국을 더 이상 경제적 협력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이 문제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모두 아시다시피 미국은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중국에 득이 될 것은 없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중국 압박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대중정책에 변화가 있을까?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쉽사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대중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중국이 이를 모를리 없다. 중국 역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자. 중국 내부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미국과 잘 지내고 싶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뽀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안과 밖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내부적으로 안정을 꾀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강한 어조의 레토릭을 발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된다. 한마디로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석: 말씀 감사하다. 이동률 교수님과 한석희 교수님께서 시진핑 주석의 재집권 이후 중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다. 특히 국가전략의 목표 그리고 미중경쟁에 대한 미중 양국의 입장 및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다음으로 주재우 교수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재우: 앞에서 다른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 된 이후의 중국도 대미 강경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통 사람들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한 모습, 사람들이 살기 편해진 모습만을 생각하며 중국의 진짜 모습을 착각하고 있다. 중국을 정상적인 일반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중국은 공산당,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하는 나라이다. 사회주의를 견지하며 공산화를 국정운영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부터 세운 그들의 국정 목표이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그때 세운 국정 목표와 일정에 따라 지도부를 꾸리고 그다음에 정책을 수립한다. 중국은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한 인물로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발탁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본인 스스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사회주의의 완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체제 경쟁, 이념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이는 오늘날까지 견지되고 있다. 2017년도에 제19차 당대회를 경험하며 저는 이미 중국이 사회주의의 완성을 위해 미국과 엄청난 경쟁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시진핑 주석도 연임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시작된 미중경쟁 과정을 살펴보면,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주도적 지위에 대해 중국을 대등한 협력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 한 바 있다. 2015년도에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남중국해 요새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귀국 이후 남중국해를 요새화를 완성했다는 선언을 하였다. 그 이후 2017년의 당대회 공작보고서에서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정세 판단을 내놓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권력의 균형이 교차점에 와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을 특정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미중 양국의 권력 균형, 세력 균형이 교차점에 와 있고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내용이었다. 후속 부분을 보면 환경의 변화로 체제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 ‘중국표준 2035’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2015년에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2년 뒤인 2017년도에 ‘중국 표준 2035’를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국제 기술 표준에서도 외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기술 영업을 하려면 중국 기술 표준에 맞추라는 것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여 입증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생각하는 체제 경쟁의 승리이자 사회주의의 완성이다. 체제 경쟁과 사회주의의 완성은 실로 모든 면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작년 9월에 방역 승리를 선언하면서 이것은 사회주의 방역 시스템의 승리라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체제 경쟁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줄곧 그 방향에서 미국을 도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을 도발한 사례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중국의 경제문제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닌 안보문제화되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주변 세력과의 규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브릭스에 중앙아시아를 포함하여 브릭스 플러스로 변경하고, 상해협력기구의 범위도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대일로, ASEAN+3도 대표적인 예이다. 모두 미국이 빠진 다자협의체로서 참여국에 체제 경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도형 개방을 들 수 있다. 즉, 경제를 개방하긴 하되 중국의 제도로 맞추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국은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선 중국이 경제발전을 하면 기존 국제질서에 잘 적응하여 국제규범과 법을 잘 준수할 줄 알았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기존 국제사회의 규범과 법을 잘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행동하리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대중국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 3연임 이후의 중국은 달라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이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2035년도까지의 10년 시기를 사회주의 협력을 완성하기 위해 관건인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미국 역시 얼마 전에 발표한 국가전략보고서(NSS)를 통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적인 시기라고 했다. 미중 양국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석: 요약하자면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은 단순히 경제 또는 비경제적 능력 차원이 아니라 체제와 이념 경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중국공산당의 지도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스스로 물러선다거나 유화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것 같다. 적어도 향후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된다. 트럼프 정부 이후 확연히 바뀐 미중갈등의 양상으로 인해 과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 묻고 싶다.

한석희: 윤석열 정부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선언하였다. 미국과의 관계 강화로도 볼 수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다. 과거 중국은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거나 미국에 밀착되는 양상이 보이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집권 이전에 표명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강한 유감표시를 한 것은 물론 집권기간 내내 한중관계 역시 좋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우리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선언에 대한 반응은 매우 절제된 모습인데, 아마도 중국의 상황이 과거처럼 좋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우선, 경제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2008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자. 2008년에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 추세였던 반면, 지금은 경제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중국 스스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둘째, 정치·외교적 판단이 서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 괜히 선불리 움직였다간 중국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우선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칫 한국에 압박을 잘못 가해 한미관계가 더욱 밀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유화정책을 한국에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한중 양국 간에는 사드문제, 대만문제,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특히 사드에 관한 '3불 1한'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모두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선 별다른 대응이 없다. 이를 통해 중국이 지금 괜히 문제 삼아 봐야 이득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거나, 설령 문제 삼는다고 과거와 같은 경제제재로 이어질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만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작년과 올해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번이나 언급을 했지만 올해 언급한 수준이 작년보다 더 앞서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대만문제에 관해서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어 향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이다. 최근에 있었던 UN인권이사회의서의 우리의 투표 양식과 관련하여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근본적인 접근에서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중국의 입장에선 관련 문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3가지 문제가 비화되지 않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한중간 대화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바랄 수 있다.

중국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데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일단 2016년도의 사드 배치 때도 중국이 우리나라에 가한 경제제재의 규모는 전체 액수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명목 GDP의 1% 정도였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은데, 중국이 선불리 한국경제에 제재를 가했다가 되려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제재를 가했던 분야를 살펴보면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광,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 역시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과거 중국의 경제상황이 좋았을 때도 이랬는데, 지금은 경제상황이 더 안 좋은데 제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에 있었던 호주에 대한 제재 경험 역시 중국이 경제 제재를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어렵게 만든 조금 부정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제재를 안 받는데 우리가 그렇게 눈치 볼 거 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보다 더 나아간, 우리가 기대해 왔던 방식으로 리세팅(resetting)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주재우: 한석희 교수님의 생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지금 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세로 가고 있는데, 제 관전 포인트는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외교장관회담이다. 두 회담의 공식 선언문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 한중외교장관회담 역시 마찬가지다. 두 가지를 종합했을 때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고 정말 협력하고 싶어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중국의 환구시보는 대선 당일이었던 3월 9일과 당선자가 발표된 3월 10일에 이틀 연속으로 기사를 냈다. 두 사설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한국이 너무 미국 편에 서는 것을 경계하는 듯한 내용들이다. 앞서 언급한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조급함 내지는 불안함 등을 엿볼 수 있다.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볼 때, 중국에 있어 우리의 참여는 매우 중요해 보인다. 경제, 기술 측면에서도 우리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손실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이 우리를 놓치면 진짜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우리도 대중정책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중국은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특히 우리 경제에서 떼어 낼 수 없는 매우 큰 시장이다. 잃어버릴 수도 없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경제협력국이다.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잘 유지하여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중간 절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금의 글로벌망이나 무역관계 등이 아니라 미래산업 영역에 대해 미리 통제하려고 한다. 미중갈등이 고조,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목표의식을 명확히 세워 우리의 목소리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반도체를 예로 들어 보자. 13나노 이상은 중국에서 생산도 안 되고 공급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우리가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양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한다면 한국외교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동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과 입장은 미중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앞으로 미중경쟁이 더욱 악화될 경우 한중관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는 미국과 비교하여 동맹은 물론이고 우군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 역시 14개 접경국 중 하나이지만 독특한 지정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는 분단 상황에 있고 북핵문제를 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해양 세력이 중국을 공략하는 통로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앞서 한석희 교수님의 말씀처럼 내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주변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안정과 현상 유지, 가능하다면 '투 코리아' 정책 기조를 유지해 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변화를 야기시키는 주요 변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 즉 미중관계이다. 그리고 북한 변수 역시 중요하다.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발의 수위에 따라 중국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미중경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가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데 어느 선까지 참여할 것인지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 사드 사태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 상처를 주었고 교훈도 주었다. 중국 역시 사드 사태처럼 보복 조치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중국이 어느 경우에도 한국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부르게 단정하기에는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한중관계 역시 여전히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않다.

주재우 교수께서 언급한 대로 한중관계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중국과 만성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성숙한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해 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30년간 한중관계의 발전을 사실상 견인해 왔던 동력은 경제협력과 인적 문화교류였다. 그런데 양국 간 경제협력은 구조적으로 빠르게 약화되고 있고, 인적 문화 교류 역시 양국 간 문화 논쟁이 확대되고 국민 간 반감이 커지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중관계의 발전을 이끌어 왔던 중요한 협력 분야의 동력도 동기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한중관계에서 논의했던 현안들은 주로 북핵문제, 통일문제 등인데 이들 이슈들은 한국이 중국에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특별한 것들이다. 사드 사태 이후 한중관계는 외형적으로는 뚜렷한 갈등과 쟁점이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협력의 공간은 축소되고 있다.

미중경쟁이 고조되고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최소한의 주도적 위치에 자리하고 미중경쟁의 소용돌이에 과도하게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청에 어디까지 부응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정교한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발신하여 중국과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소통하고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석: 여러 교수님들께서 우리의 대중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물론 현재 중국의 대내외 상황이 예전처럼 녹록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한국에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국가로서 신중한 대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셨다. 우리 스스로 국익은 최대화 하고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거 사드 사태 때의 교훈을 다시금 떠올려 본다. 최근 IRA, 반도체 관련 법안 등 일련의 흐름을 살펴볼 때 우리 스스로 외교적인 선택권을 확보하고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다. 관련하여 좌담회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다. 현재 미중관계를 둘러싼 모든 상황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더욱 밀착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주도의 경제체제에서 사실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국가는 한국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에 있어 바람직한 한중관계는 무엇인지, 또 이 관계를 미국에 어떻게 설명하고 미국이 받아들일게 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한석희: 미국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역할과 방향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 미일동맹의 역할과 한미동맹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일본이 더 잘 움직이기 때문에 미일동맹이 더 잘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에 한미동맹도 미일동맹처럼 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한미동맹의 역할은 미일동맹의 역할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하고 싶다. 우선 한미동맹은 북한을 막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는 미중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한미간 신뢰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한중간 경제관계가 현재와 같이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사실 이것은 미중 양국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미국에 대해 그리고 미국인들에 대해 굉장히 알고 싶어 한다. 어쩌면 과거보다 미국에 대한 정보가 더 없다고 느끼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정보가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의 교류에 많은 제약이 생기다 보니 양국의 가고 역할을 한국이 해주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의 베스트 옵션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중국과의 관계 역시 좋아야 한다.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역할도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완충지대이자 중재자 역할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중립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의 정도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중립의 정도를 정의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한 상태에서 중국이랑 같이 가겠다고 설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중립이다. 현재 주변 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중국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 다른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펼치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온화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중갈등이 심화·고조·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극해 자칫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된다면 중국에게 자칫 골치 아픈 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주제우: 관계가 좋고 안 좋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 특히 관계에 대한 인식, 감정도 중요하지만, 외교는 결국 비즈니스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니즈를 알고 우리의 니즈를 알고 그다음 상대방의 목적과 취지와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 그리고 판세의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의 가치는 상승가를 치고 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두 나라를 모두 이용하려면 무엇보다도 양국의 정책과 입장에 대해 누구보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제가 요즘 주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 앞서 한석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생각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과거 사드 사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021년도의 NSS에는 물론, 1차 쿼드 정상회담 때도 언급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급기야는 미 상원에서도 동맹국을 보호해야 된다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 앞으로 통과 여부는 봐야겠지만 미 의회에서 동맹국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을 근거로 최근 미국 내에서 동맹국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앞으로의 행보는 무엇일까. 미국의 방향에 대해 우리는 몇 수 앞을 내다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미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모두 살펴봤다. 칩4 동맹, IRA 그리고 바이오 법안이 나오면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 미국 의회의 법안은 국내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후 상정된 법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식량, 원유 그리고 광물자원법안까지 모두 상반기에 상정되었다. 우리는 앞서 말한 법안의 내용과

순서를 염두에 두고 향후 미국과의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가 이익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미리 대비하여 막아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공작보고서를 살펴보면 앞으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짐작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모두 살펴보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미중 양국의 정책에 대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이거니와 미중갈등에 대한 대비 역시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상유지에 머무르는 외교, 뒷북치는 외교를 한다면 우리 국익의 수호는 둘째치고 내실 없는 양국 사이의 메신저 역할밖에 안 될 것이다.

이동률: 사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들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상응하여 동맹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보복 조치로부터 동맹을 확고하게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미국에 대한 신뢰도 약화되고 동맹들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일련의 행보는 동맹에 대해 많은 요구를 하는 반면에 충분한 보호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돌연 철군한 것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등은 미국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역할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앞서 주재우 교수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우리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도 높아진 만큼 중견 선진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외교력을 배양하고 발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졌다. 기존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미중경쟁 속에서 상대화되어 평가된 측면이 강했다. 이 경우 자칫 미중경쟁에 더 깊숙이 휘말릴 우려가 있다. 이제는 한국의 독자적이고 절대적인 전략 가치와 위상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 다양한 국가들과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강대국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외교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분단 상황에 있고 북핵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 간 경쟁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 스스로가 미중경쟁의 파고를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경계할 필요는 있다.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체제, 통일문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이들 난제를 정권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면서 결국 미중갈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다. 중국과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전략 이슈의 범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한반도의

불안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한반도 안정이라는 방향성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회복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석: 현재 중국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했을 때 과연 우리는 중국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는 미중관계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엄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혹자는 한국이 명민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한국이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기도 한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들어 보니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유익한 의견을 들려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이번 북한경제협의회를 마치도록 하겠다.